

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 개시 내용과 평가

2006. 02. 09

고희재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hcko@kiep.go.kr]

주요 내용

지난 2월 2일, 한국과 미국은 美 국회의사당에서 한·미간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함. 이에 따라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 LA타임지, 뉴욕타임지 등과 같은 미국 언론들도 이에 대한 내용과 평가를 일제히 보도함. 즉, 미국의 주요 언론은 공통적으로 한·미간 FTA 협상 개시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미간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적인 협상의 체결에 대해서는 의문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즉, 한국의 경우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영화제작자들의 반발,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제품 인정 여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시장장벽에 대한 미국자동차 업계의 불만 등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함.

1.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

-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美 국회의사당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Rob Portman)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함.
- 이에 따라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 LA타임지와 뉴욕타임지 등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소식을 주요기사로 다룸.

2. 미국의 주요 언론이 본 한-미 FTA협상

- AP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제 7위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자유무역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타결이 될 경우 NAFTA 협상 이후 미국이 체결하는 최대규모의 FTA라고 보도함.
 - 양국간의 협상은 미국내 법적인 절차로 인해 협상개시 선언 후 90일 이후부터 시작됨.
 - 그러나 한국의 농업부문에서 강한 저항과 한국정부의 자유무역정책에 비판적인 국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
 - 또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저가의 한국산 자동차, 핸드폰, TV 등 기타 소비재 상품으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면 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함.
 -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높은 시장장벽에 대한 미국자동차업계와 농민들의 불만 등이 협상의 장애물로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AP통신과 유사한 논조를 유지하고, 격렬한 시위로 알려져 있는 한국 농민의 저항과 등으로 성공적인 FTA체결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고 전함.
 - 또한 한국은 높은 관세 장벽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한국시장 진입이 어려운 반면, 한국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내 시장 진입이 용이함을 지적함.
 - 이로 인해, 2004년 중 한국의 對미국 자동차 수입은 단지 5,415대였지만, 반면 한국의 對미국 자동차 수출은 미국 시장의 4.1%를 차지하는 688,700대를 기록하였음.
- LA타임지에 따르면, 양국간 교역규모가 연간 7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NAFTA 협상에서와 같은 큰 쟁점은 보이지는 않으나,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한국에서의 다소 과격한 반세계화 움직임과 같은 문제가 상존해 있다고 전함.

- 이에 대한 예로써 지난 2월 2일, 100여명 정도의 농민들이 한국의 공청회를 강압으로 중지시켰다고 언급함.
 - 그러나 한국과의 FTA는 한·미간 정치·경제적인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2001년에 발표된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간 FTA가 체결될 경우 對한국 수출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자동차, 쇠고기와 영화 등을 중심으로 54%정도 증가, 對한국 수입은 섬유, 의류와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21%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양국 무역이슈 중 오랜 장애물이었던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였지만, 아직도 FTA를 성사시키기 전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는 농업분야, 문화적 예외 인정, 교육시장 개방, 통신 등이 있음.
 -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는 최근 노동비용이 싼 개성에 입주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처리문제임.
- ※ 한국정부는 비무장지대 북쪽에 있는 개성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한국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시행정부는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LA타임지는 보도함.
- 뉴욕타임지는 한·미간 FTA 협상 개시 소식을 전하며 영화제작자나 농민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지난 2일, 한국에서 100여명의 농민들이 공청회를 강압적으로 중지시킨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 12월 홍콩에서 열린 제 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 중 보여주었던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아진 한국농민들의 과격한 시위를 언급함.
 - 또한 2001년 이래 한국영화는 한국시장 점유율을 50%이상 유지하였으나, 영화제작자들은 한국정부가 스크린쿼터축소에 반대해 시위를 시작하였음.

-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한국정부는 대규모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 진흥대책(5년간에 걸쳐 4천만 달러 지원)을 발표 하였으나 한국의 영화제작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도함.

3. 평가

- 미국의 주요 언론은 공통적으로 한·미간 FTA 협상 개시 소식을 전하며 한·미 FTA가 한·미간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체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LA타임지에서는 북한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의 성공적인 협상체결에 대해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시사함.
- 이와 같은 미국 언론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한·미 FTA 협상 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즉, 한국의 경우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영화제작자들의 저항, 국회의 반대와 북한 문제 등이 협상의 난제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높은 시장장벽에 대한 미국 자동차업계 불만 등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